

단편력사소설창작에서의 소재탐구

김 광 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문학예술작품에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의 인간을 그리든지 자주성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 인간의 생활속에서 아름다운것을 찾고 그것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01페이지)

단편력사소설에서 자주성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 인간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아름다운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작품의 바탕으로 되는 소재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다른 문학작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단편력사소설창작에서도 소재탐구는 작품창작의 첫 공정, 선결조건으로 된다.

소재에는 심오한 인간문제의 싹이 있고 형상의 바탕으로 될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의 실체가 내포되어있기때문에 맞춤형 소재를 골라잡기만 하면 지나간 력사속의 인간과 생활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가지고 환상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칠수 있다.

그러므로 창작가는 소재탐구의 중요성과 그 미학적요구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가지고 단편력사소설창작에서 그 첫걸음부터 정확히 내짚어야 한다.

길지 않은 용적속에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심고 짧고도 세련된 형상으로 력사적인물의 성격과 생활을 생동한 화폭으로 그려내는 단편력사소설의 소재는 한마디로 말하여 력사적사건에 기초한 극적인 소재라는데 그 본질적특성이 있다.

단편력사소설의 소재를 탐구한다는것은 곧 력사적사건에 기초하면서도 극성이 강한 소재를 탐구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시대적의의가 있으면서도 극적인 이야기의 싹이 체현되어있는 소재를 탐구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단편력사소설의 소재탐구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게 되는것은 단편력사소설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생리와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단편력사소설은 다른 소설형태들에 비해볼 때 비교적 짧은 형식속에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비록 과거속의 인간이지만 력사적인물의 성격과 생활을 실지 눈앞에서 살아움직이는것처럼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펼쳐보이는것으로 하여 소재탐구에서도 길지 않은 생활단면속에서 작품의 종자와 인간문제를 효과적으로 밝혀낼수 있는 극성이 강한 소재를 탐구할것을 요구한다.

단편력사소설의 소재가 력사적사실에 기초한 극적인 소재로 되어야 하는것은 우선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할 때 단편력사소설이 력사의 진리와 교훈을 생동하게 반영할수 있게 되기때문이다.

단편력사소설에서 실지 있는 력사적사실을 그리는것은 력사소설창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력사주의적원칙을 구현하는 문제인 동시에 보다 중요하게는 단편력사소설의 창작목적과 관련되는 근본문제, 원칙적인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단편력사소설은 홀리간 민족의 장구한 역사속에서 다른 소설형태들에 비해 생활용적이 비교적 작은 자기의 형태에 적합하면서도 오늘날 우리 인민들에게 투쟁과 생활의 귀중한 진리를 인식시킬수 있는 의의있는 역사적사실이나 사건들을 반영한다. 물론 여기서 기본은 역사적사실이나 사건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에 내재되어있는 사상주제적내용의 폭과 깊이에 있다. 그렇다고 하여 사상주제적측면에만 치중하면서 역사적사실을 무시하여서는 아무리 의의있는 사상적내용도 생동한 역사적화폭의 구체성속에서 형상적으로 훌륭히 재현해낼수 없게 된다. 그것은 단편력사소설의 소재로 되는 역사적사실이나 사건이 바로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투쟁과 생활의 진리가 내재되어있는 생활적바탕이기때문이다.

력사소설이 아닌 일반단편소설들에서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작품에서 실재한 사건을 그릴수도 있고 의의있는 사상을 밝히기 위하여 전형화의 원칙에서 허구적인 내용을 반영할수도 있다. 그러나 단편력사소설에서는 작품의 형상성을 높인다고 하면서 역사적사실이나 사건의 기본대를 무시하여서는 안되며 그렇게 하면 오히려 형상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할수 있다.

단편력사소설의 소재가 역사적사실에 기초한 극적인 소재로 되어야 하는것은 또한 그것이 실재한 역사적사실에 기초하는것과 동시에 극적인것으로 탐구되어야 단편과 같이 짧은 용적속에서도 인물의 성격과 생활의 본질을 섬광처럼 드러내는 형상적화폭을 훌륭히 창조할수 있기때문이다.

다른 형태의 소설들에서도 그러하지만 강한 극성은 단편소설의 생명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래서 단편소설을 쓰는 작가는 인물들의 생활의 평범한 사말사가 아니라 시대와 인물 성격의 본질이 섬광처럼 드러날수 있는 극적인 사건과 생활단면을 선택하여 작품에 반영하게 된다.

단편력사소설에서도 역사적인물의 특색있는 성격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의 새롭고도 본질적인 성격의 정수가 예리하게 드러날수 있는 비상한 정황을 동반한 극적인 사건을 그려야 하며 그리자면 무엇보다도 강한 극성을 체현하고있는 소재를 탐구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단편력사소설 《고려태조의 신하》(강상호 《조선문학》 주체88(1999)년 11호)의 경우를 사례로 들수 있다.

소설은 931년 왕건의 신하였던 유검필이 간신의 모해를 당하여 류배를 갓으나 임금에 대한 충의를 버리지 않고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시켜 고려에 침입한 견훤의 군대를 물리친 역사적사실을 소재로 하여 창작되었다.

이 작품의 소재는 한마디로 말하여 역사적사실에 충실하면서도 그자체에 강한 극성까지 내포되어있는 단편력사소설에 매우 적합한 소재라고 할수 있다. 왕의 어명으로 류배살이를 하는 죄인(유검필)이 나라의 법을 어기고 군사를 모집한것이라든가, 전함을 수리하여 적의 침공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는것 등은 그자체가 벌써 보통의 상식을 벗어난 극히 비상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소재단계에서부터 극적인 이야기의 실체가 보이는 좋은 본보기라고 말할수 있다.

중세봉건사회에서 관리들에 대한 류배제도가 얼마나 철저하고 엄격했는가 하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작품의 소재에 반영된 역사적시기로 말하면 갓 나라를 세운 왕건이

봉건국가의 전반적인 통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지배권강화에 힘을 넣고있던 고려성립이후 첫 시기에 해당된다. 일단 류배살이를 가지만 하면 신분상 가장 비천한 계층으로 굴러떨어지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자칫하면 탕자나무울타리속에 갇히운채 불우한 인생을 마치기가 십상인 귀양죄인의 처지에서 보통의 사회활동도 아닌 군사활동을 그것도 왕의 승인이 없이 자의대로 결심하고 적의 침공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었으니 참으로 비상한 성격에 비상한 정황을 체현하고있는 극적인 소재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14년에 참소를 당하여 곡도로 귀양갔다. 이듬해에 견훤의 해군장군 상애 등이 대우도를 공격략탈하므로 태조가 대광 만세 등을 파견하여 구원하게 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였으므로 태조가 근심하고있었는데 유점필이 글을 올려 고하기를 <저는 비록 죄를 짓고 귀양살이는 하고있지만 백제가 우리의 해변지방을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미 곡도와 포을도의 장정들을 선발하여 군대를 편성하고 또 전함도 수리하여 방어하게끔 되었으니 주상께서는 넘려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였다.》

보는것처럼 력사기록에 반영되어있는 사실 그자체는 불과 몇줄밖에 안되는 단편적인 기록에 불과하지만 소재가 안고있는 비상한 극성은 그에 따르는 소설의 극적인 이야기로 특색있게 전개되고있다.

주인공 유점필이 왕에게 사냥을 권유하여 왕건일행이 왕궁을 떠나고 그 틈을 타서 견훤의 군대가 변방으로 침입하여 고려가 한동안 혼란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것을 기회로 역적 환선길이 유점필을 모해하고 그로 하여 주인공은 류배살이를 가게 된다. 또한 대광 만세가 후백제군에 패전하며 뒤이어 류배지에서 유점필이 키운 군사와 전함들이 후백제군을 성공적으로 격퇴하게 된다. 마감에 왕의 호위를 맡았던 환선길이 반역을 꾀하고 음모가 분쇄되는것과 동시에 유점필의 모함도 벗겨지게 된다. ...

소재에 내포되어있는 강한 극성이 작품에 반영된 주인공의 성격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작품에서 주인공의 성격은 대사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 왕에게 간하여 억울한 류형을 취소하게 하겠다고 하는 대광 만세에게 하는 말:
《임금이 이제 귀양을 취소하면 어명이 너무 가볍게 되오. 그렇게 해서야 우리 어찌 옥좌를 보좌할수 있겠소?》
- 어명을 받고 출전하던중 자기를 위로하려고 섬에 들린 만세에게 하는 말:
《고맙소만 충정을 말하고 의리를 말하는것이 순서요. 대광은 어명을 받고 출전할 때 즉시 출전하였지 언제 한번 집에 들러서 자고간적이 있었소? 대광은 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어명을 받들어야 했소.》
- 류배지에서 계속 군사를 키우다가는 모반죄까지 쓸수 있다고 력설하는 아들앞에서 하는 말:
《남의 비위나 맞추면서 살기는 쉬운 법이다. 그러나 너는 계속되는 전란으로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알아야 한다. 내가 왜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군사를 키우는지 알아야 한다.》
- 아버지는 왜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가고 하는 아들에게 준절히 타이르는 말:
《너는 감히 아버지에게 살줄 아는 법을 가르치려든다만 사는 법은 너희들이 아버

지에게서 배워야 한다. 우리는 자기 한생으로 너희들을 가르치려다. 허끝으로가 아니라.》

보는것처럼 이 몇개의 대사를 통하여 오해로 하여 루명을 쓰고 파멸의 나락에 떨어지면서도 나라와 백성앞에 지닌 충의를 버리지 않는 주인공의 극적인 성격을 알수 있다.

이러한 형상적효과는 강한 극성을 내포하고있는 소재의 특성에 기인된것이였다. 다시 말하여 소재가 안고있는 극성이 작품의 매력적인 형상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던것이다.

단편소설 《고려태조의 신하》에서 본바와 같이 단편력사소설의 소재는 실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면서도 극적인것으로 되여야 역사의 진리와 교훈을 단편력사소설의 형태적 특성에 맞으면서도 역사적인 산 화폭속에서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인식시키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단편력사소설의 특성에 맞는 소재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사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의 생활과 운명선에서 시대적의의가 있는 인간문제의 싹이 체현되어있는 생활단면을 탐구하여야 한다.

민족의 역사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애국적인 명장, 명인들과 그들의 생활은 역사소설의 중요한 형상대상이며 그들의 형상을 옹바로 창조하는것은 역사소설에서 해당 시대의 역사적화폭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역사소설에서는 마땅히 우리 민족의 역사에 공적을 남긴 애국적인 명장, 명인들을 형상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허구적인물이 아니라 민족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애국명장들과 명인들의 실재한 생활자료에 근거하여 역사소설에 알맞는 소재를 탐구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단편력사소설창작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새겨주는데 이바지하는 단편력사소설을 창작하면서 허구적인물을 내세우는것은 사실상의의가 없으며 일부 특수한 경우를 내놓고는 역사적사실과 동떨어진 인물, 허구적인 소재를 잡는것은 역사주의적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단편력사소설의 소재는 역사적인물의 실지 활동과 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어느 한 부분, 여러 갈래의 하많은 생활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것으로 되는 동시에 그의 생애에서 극적인 전환점으로 되는 한마디로 말하여 강렬한 극성이 동반되는 구체적인 생활단면으로 선택되여야 한다. 여기서 명백히 해두어야 할 문제는 단편력사소설의 소재가 장, 중편력사소설들의 소재와는 달리 그의 시공간적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짧으며 하나의 극적인 사건으로 집약될수 있는 이야기이여야 한다는것이다.

단편력사소설 《을사년 이듬해》(리성덕 《조선문학》 주체97(2008)년 11호)의 소재를 살펴볼수 있다.

이 소설은 《을사5조약》날조를 전후한 시기 애국적인 의병장, 당대의 유학자로 이름높았던 최익현의 성격과 생활을 반영한 작품이다. 소설은 비록 단편이라는 짧은 형식을 통하여 이야기를 펼치고있지만 작품전반을 통하여 역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반일의병장으로서의 최익현의 성격과 생애의 전모가 잘 안겨오도록 하고있으며 그가 남긴 역사의 심각한 교훈도 장, 중편소설에 못지 않은 무게를 가지고 깊이있게 강조되고있다. 그러면서도 이 작

품의 소재는 장, 중편력사소설에 비해볼 때 매우 작다.

소설에서는 최익현의 곡절에 찬 인생행로가운데서 의병장으로 나라 위한 의로운 길에 나섰다가 원쑤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여 적들에게 체포된 최익현이 쓰시마로 이송되어 처형당한 사건을 선택하여 반영하였다.

최익현의 전생애에서 소재로 선택된 생활부분이 안고있는 시공간적크기는 매우 작으며 벌어지는 사건도 많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주인공의 운명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성격발전의 구획이 명백하게 이루어지며 강한 극성도 흘러나올수 있는 운명적인 계기, 극적인 계기로 되고있다.

누구나 죽음을 앞둔 시각에는 자신의 한생을 돌이켜보게 된다. 더우기 소기의 지향과는 배치되게 대역부도죄인으로 낙인되어 황제도 만나보지 못한채 비극적죽음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주인공은 그 어떤 편견이나 주관에도 기울어짐이 없이 맹렬하게 자신의 한생과 학문을 종합해보게 되며 그 과정에 자신의 지나온 한생이 열은 있지만 참되고 바른것은 못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이제껏 진심으로 받아들여온 임금이라는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품은 큰 뜻으로 이기고 신념과 의지로 이기고 담력과 배짱으로 이기고 열정과 인덕으로 이기는 그런 명장인 임금》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간직하는데로 승화되고있다.

이렇게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의 생활과 운명선에서 탐구되는 단편력사소설의 소재는 그들의 실지 있는 생활속에서 성격발전 및 운명전환의 극적인 의의를 가지는 계기, 참으로 심오한 인간문제의 싹이 내포되어있는 의미심장한 생활자료여야 한다. 이러한 소재를 잡자면 단편력사소설작가들이 더 높은 안목을 가지고 역사자료들을 연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깊이 사색하여야 한다.

단편력사소설의 특성에 맞는 소재를 잡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역사적의의가 있는 사실, 사건들속에서 새로운 역사적진리의 싹이 체현되어있는 생활단면을 탐구하여야 한다.

민족사에 기록된 사실, 사건들가운데서 단편력사소설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귀중한 역사적진리의 싹이 체현되어있는 소재를 탐구하는것은 역사적인물의 실재한 생활속에서 소재를 찾는것과 함께 단편력사소설의 소재탐구에서 나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역사적의의가 있는 사실, 사건들속에서 소재를 탐구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규모가 큰 사실, 사건들속에서만 역사적진리의 싹이 체현되어있는 생활자료를 찾는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반만년에 달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는 수많은 반침략전쟁들과 반봉건투쟁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발명, 발견들을 비롯하여 크고작은 사변, 사건들을 기록하고있다. 그 가운데서도 규모가 크고 중요한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사건들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고 그에 대한 탐구를 심화시키는것은 역사연구와 학습에서도 중요한 방법론으로 되며 동시에 우리 나라의 역사를 형상적화폭에 담아 재현해내는 역사물주제의 문학작품창작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의 하나로 된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단편력사소설창작에서도 인식교양적의의가 크면서도 우리 민족사의 빛나는 한페이지를 아로새긴 중요한 사실, 사건들을 적극 형상하는 문제가 나서게 된다.

그러나 단편력사소설창작에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한 사실, 학계에서 아직까지도 미해명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역사적사실, 사건들을 민족사의 공백을 메꾸는 립장에서 형상적화폭으로 적극 재현해내는 문제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제기된다.

단편력사소설은 그리 크지 않은 소박한 소재를 가지고 의의있는 력사의 진리와 교훈을 깊이있게 해명할수 있는 형상적가능성을 가진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 규모와 시공간적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극히 빈약하게 남아있는 력사자료에 기초하여서도 얼마든지 문학사에 남고 우리 민족사에 대한 이해와 상식을 풍부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설작품들을 창작할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단편력사소설에 고유한 형상적가능성인 동시에 다른 형태의 소설작품들에는 없는 단편력사소설의 특성이며 우월성으로 된다.

작가들은 단편력사소설의 이러한 우점을 잘 살려 세상에 널리 알려진 큼직큼직한 사실, 사건들에만 관심을 돌릴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속에 잘 알려지지 않고 세월의 이끼속에 두텁게 묻혀있던 《자그마한》 사실, 사건들에도 낯을 돌려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우선 작가들이 력사학자 못지 않은 높은 자질과 탐구열을 가지고 새로운 력사자료들을 적극 찾아내고 력사발전의 본질과 합법칙성에 맞는 깊이있는 분석을 통하여 민족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보석같은 소재들을 찾아내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편력사소설작가는 높은 력사적안목과 예술적기량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거나 이미 예술적화폭으로 형상되기도 한 력사적사실, 사건들속에서도 단편소설에 적합한 새로운 생활소재를 발견해낼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결코 작품의 품위를 떨구는것으로 되지 않으며 널리 알려진 의의있는 력사적사실, 사건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킬수 있게 하는 좋은 방도로 된다. 때문에 작가들은 단순히 예술활동을 벌린다는 실무적인 립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사를 더욱 풍부히 하고 빛내인다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 서서 단편력사소설의 소재들을 부단히 탐구해나가야 한다.

단편력사소설의 특성에 맞는 소재를 잡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여러 력사적사실, 사건들 가운데서 극적인 형상요소들의 실체가 체현되어있는 생활단면을 탐구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의 소재는 형상의 바탕으로 되는 구체적인 생활자료이다. 소재가 형상의 바탕으로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소재에 구성작업을 거쳐 문학작품이 하나의 생명유기체처럼 살아움직이게 할수 있는 구체적인 형상요소들이 들어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특히 해당 소재에 극적인 형상요소들의 실체가 보이는가, 작품의 극적인 이야기로 전개될수 있는 충분한 형상적전제가 마련되어있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단편력사소설의 소재는 본질에 있어서 력사기록 그자체인것이 아니라 실재한 력사적인물이나 사실, 사건과 관련한 여러가지 자료들가운데서 인식교양적의의가 크면서도 단편소설의 형태상특성에 맞게 인간과 생활에 대한 모든 형상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재현해낼수 있는 충분한 형상적가능성을 가지고있는 구체적인 생활자료로서 취사선택된 현실 그대로의 생활 그자체이다. 단편력사소설의 소재에 극적인 형상요소들의 실체가 체현되어있다고 할 때 그것은 소재를 통하여 단편력사소설의 극적인 인간관계와 사건, 일화, 갈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형상요소들이 표상적으로 안겨온다는것을 의미한다.

단편력사소설 《을사년 이듬해》의 실례를 놓고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실지 력사기록에는 1906년에 매국적인 《을사5조약》의 날조를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킨 최익현이 일본침략군과는 싸우는 기세가 매우 용감하였으나 자기를 탄압하기 위해 파견된 봉건정부의 진위대에 대하여서는 같은 동족이라고 하여 싸우기를 주저하였으며 그로

하여 부대가 파멸의 위기에 처하고 종당에는 최익현자신도 포로의 운명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궁내부 특진관으로 있던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켜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던중 일제의 사촉을 받은 봉건정부 특히는 왕에게 기만당하여 투항하고 이후 쓰시마로 끌려가 처형당하는것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력사적으로 볼 때 사실상 최익현과 당시 봉건군주사이에는 작품에 반영된것과 같이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실지로 최익현은 1906년에 《을사5조약》의 날조를 계기로 의병을 일으키기 전까지도 봉건정부의 벼슬요청들을 전부 거절한채 초야에 묻혀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작가는 봉건정부의 하수인인 진위대를 원쑤가 아니라 동족으로만 보면서 그와 싸우기를 단념하고 타협적으로 행동한 최익현의 성격에서 봉건정부 특히는 봉건왕에게 환상을 품고 투쟁을 포기하였다가 다름아닌 그 왕에게 배반당한채 낯설은 타향에 끌려가 옥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주인공의 새로운 성격, 봉건정부에 어리석은 기대를 품었다가 세웠던 뜻만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도 지켜내지 못한채 천추에 사무친 원한을 남기게 되는 역사적인물의 극적인 성격을 발견하였다.

그로부터 작가는 우선 주인공과 봉건군주사이의 관계를 력사적사실에는 없지만 여러 측면에서 련계가 깊은 친밀한 관계, 연고관계로 설정하였다. 1906년 의병을 일으키기 전까지의 최익현의 벼슬도 임금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궁내부 특진관으로 설정하였으며 여기에 의병대인물들과 관료계렬의 동료들까지 포함하여 각이한 성격의 인물들을 설정함으로써 《품은 큰 뜻으로 이기고 신념과 의지로 이기며 담력과 배짱으로 이기고 열정과 인덕으로 이기는 그런 명장인 임금》을 그리는 주인공의 전형적인 지향세계를 구체적인 생활로써 충분히 펼쳐보여줄수 있는 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주었다. 또한 극적인 사건의 발생도 임금에게 배신당하여 왜놈들의 손에 넘겨지는 구체적인 계기를 통하여 펼쳐지도록 하였으며 전투장면, 호송장면, 감옥장면, 최후장면과 같은 이야기줄거리의 기본대도 주인공의 지향세계를 밝히기 위한데로 치밀하게 맞물려지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70고령이 넘도록 유지해온 궁중관료의 어마어마한 신분에 위정척사론의 대표자이며 당대의 유학자인 만만치 않은 학식과 경력을 자부하며 살아온 주인공의 굳고굳은 인생좌우명이 그의 최후를 계기로 일조에 허물어지는 강한 극성이 흘러나오도록 형상의 기본흐름을 명백히 잡아주었다.

총적으로 볼 때 단편력사소설의 소재는 력사적인물의 운명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될수 있는것이여야 하며 비록 소박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과 운명을 두고 과거와 현재를 련결시키고 자기자신과 그들을 서로 대비해보면서 인간문제에 대한 심오한 사색을 불러일으키도록 할수 있는 썩이 있는것이여야 한다. 또한 작가가 자기의 실생활을 통하여 도저히 체험해볼수 없는 생활자료인것만큼 단편소설창작에 필요한 여러가지 형상요소들의 실체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서 작가로 하여금 창작적흥분과 환상을 불러일으킬수 있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재들을 잡자면 작가의 소재선택작업이 력사적사실자체에 대한 단순한 자료적과악이 아니라 과거의 시대상을 깊이있게 과악하기 위한 간접적인 체험단계로 되어야 하며 그 시대의 생활속에서 새로운 성격과 독특한 인간문제를 발견해내기 위한 정력적인 탐구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편력사소설의 소재선택작업은 그 어떤 다른 형태의 문

학작품창작에서보다도 깊은 탐구와 열정을 동반하게 되며 어떤 요행수나 기교에 매여달릴 것이 아니라 역사적시대의 생활을 목적의식적으로 깊이있게 탐구하는 과정으로 될것을 요구한다.

모든 작가들은 우리 민족의 찬란한 역사를 세계에 널리 자랑하며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주체문학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길수 있는 훌륭한 단편력사소설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단편력사소설, 소재탐구